

「세 번째 시간」

# 임플란트로 다시 찾은 내 치아, 소중하게 관리하기

이번 달에는 잇몸질환이 있는 당뇨병환자가 수면치과 치료,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 즉시 임플란트 시술, 아프지 않은 잇몸뼈 이식술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당뇨병환자,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시술받는 법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주질환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고 여러 가지 신체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과월호에서 다룬 대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잘 시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속속 개발되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 시술법을 받는 것이 좋다.

### ▶ 수면치과치료

장시간의 치과치료를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면서 편안하게 수술 받는 수면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장혁진 대표원장 | 강남퍼스트 치과  
임플란트 전문의



### ▶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

당뇨가 있는 경우 수술 후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붓기와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붓기와 출혈, 통증이 없는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

### ▶ 정확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한 정확한 시술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잇몸뼈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시술받는 것이 좋다.

### ▶ 아프지 않게 통증을 관리하는 시술방법

요즘은 아프지 않게 시술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아프지 않는 전문 시술병원을 찾는 것이 치료의 동기부여를 위해 바람직하다.

### ▶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임플란트 시술법

긴 임플란트 시술시간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게 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는 ‘노벨가이드 임플란트’, ‘즉시 임플란트’ 등의 최신 시술법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

### ▶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법

임플란트 시술기간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바로 치아를 끼우는 ‘즉시기능 임플란트’ 시술법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당뇨병환자의 특성과 당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당뇨전문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 임플란트 관리를 위한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를 얻었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임플란트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임플란트가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플란트 자체는 영구적일 수 있으나 관리가 잘못되어 임플란트를 감싸는 잇몸뼈가 또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임플란트가 손상되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철저한 잇몸관리만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혈당조절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잘 알아야 한다. 임플란트 및 치주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리를 유의해야 한다.

- 첫 번째,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
- 두 번째, 병원에서 관리하는 방법

위의 두 가지 관리법은 어느 한 가지 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치 집안청소에도 대청소와 매일의 청소가 같

이 이루어져야 집안이 청결하게 유지되듯이, 스스로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과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의사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매일매일 하루 3번하는 칫솔질
- 치간 칫솔
- 수압청소기 (워터픽)
- 치실 (플로스)

이 중 매일매일 하는 칫솔질은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칫솔질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칫솔질은 치과에서 보다 정확한 칫솔질 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옆의 사진은 치간 칫솔의 사진이며 잇몸이 꺼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칫솔질만으로 음식물의 잔사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

으로 잘못된 상식으로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반드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밖에도 치아사이를 청소하는 치실의 사용도 좋으나 불행히도 치실의 사용은 쉽지 않다.



따라서 치실의 사용 보다는 수압세정기 (워터픽)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다.

수압세정기를 사용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잇몸이 오히려 들뜨고 피가 나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기증상이며 잇몸이 청소되면서 나오는 증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수압세정기를 사용하면 잇몸이 들뜨고 붓고 출혈이 나는 등의 증상은 소실되게 되며,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효과적인 좋은 구강관리가 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방법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과정을 거친다.

- 시술 후 한 달 후 정기점검
- 시술 후 3개월 뒤 정기점검
-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3개월마다 잇몸치료
- 잇몸상태가 좋은 경우 6개월 마다 잇몸치료

일반적으로 꼭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 않은 잇몸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다. 하물며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자주 치료받는 것이 좋다. 치과에 오게 되면 치료하게 되는 잇몸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스케일링 치료 & 칫솔질 교육
- 큐렛치료
- 잇몸수술

먼저 스케일링 치료는 가장 구강건강관리중 기본이 되는 치료방법이다. 초음파 스케일링뿐 아니라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해 잇몸치료를 하게 되므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잇몸치료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큐렛치료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잇몸치료를 하기에 잇몸질환에 더 진행된 경우에 시술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치과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하나 큐렛의 경우에는 조금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스케일링과는 다르게 치아전체를 당일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몇 차례에 나누어서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잇몸수술은 잇몸이 극도로 나빠진 경우에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주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스스로 하는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잇몸 수술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 연재를 마무리 하며

필자는 당뇨 전문치과병원으로서 당뇨병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치과치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최첨단 장비와 치료기술의 발달로 당뇨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증과 긴 시술기간, 치료시의 불편함, 식사를 못하는 기간발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으므로 가까운 당뇨전문 치과를 내원해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고리타분한 말은 치과치료에 있어서는 금과옥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3회에 걸친 연재를 마친다. 본인의 원고를 실어주시고 당뇨병환자를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한 국당뇨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